

◆ EDC, 도미니카공화국 건설회사 앞 신용공여한도 설정

EDC는 3월 24일 도미니카공화국의 최대 건설업체인 Sinercon S.A.와 1,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자금은 Sinercon S.A.가 향후 2년간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Sinercon S.A.는 약 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사업을 수행해온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건설회사이다. 캐나

다와 도미니카공화국간 무역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대되는 추세로, 캐나다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은 최근 연평균 1억 300만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최대 해외투자국 중 하나로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통신, 광산, 금융 및 여행부문에 투자되었다.

【박 해 선】

◆ JBIC, 엔차관제도 개선

JBIC과 일본 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엔차관의 제공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엔차관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일본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하여 5년간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액을 100억 달러까지 늘리고, 특히 아프리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엔차관 개선내용은 일본 정부의 ODA 지원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최빈국 지원에 대한 엔차관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발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빈곤국(LDC)에 대해서는 기존의 0.9%의 금리를 대폭 낮추어 무이자에 가까운 0.01%의 금리로 엔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상환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40년(거치기간 1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협조금융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엔차관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채무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리는 최대 0.7% 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였다.

넷째, 엔차관 사업이 기한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계약의 기한연장을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2%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2007년 1월부터 제공되는 신규 엔차관부터 적용된다.

【조 은 진】